

2008 제주 문예연감

무용

2007 제주무용계를 돌아보며

1. 들어가며

2007년 제주무용계는 예년과 다름없이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출신 무용인 이지은의 해외공연과 수상실적을 제외하면 제주 무용단체의 공연활동은 매우 저조했고 무용계 내부의 갈등 또한 봉합된 채 여전히 단체의 명맥만 잇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도내 무용계의 자존을 지켰던 제주도립예술단은 안무자 선임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공연실적도 2006년보다 저조했다.

한국무용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역시 지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잡음을 내, 지역무용계의 지도부로서 한계를 드러냈다.

이 글은 2007년 제주무용계 활동을 돌아보고 분석하기 위해 쓰여졌다. 지역일간지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공한 자료, 각 공연장의 홈페이지 자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무용계의 한 해 활동을 정리, 분석하였다.

2. 2007년 제주무용계 활동

가. 제주도립예술단

2007년 공연 실적은 20건으로 2006년의 34건보다 14건이 줄어들었다. 도립예술단 무용단의 공연활동이 감소된 것은 특이한 경우다.

상·하반기 정기공연 2건을 비롯, 초청·특별공연 18건이 그것이다. 정기공연은 7월, 11월 신임 안무자의 안무로 올려졌다.

상반기 작품은 7월 13~14일 두차례 열린 제34회 정기공연 「설(說)·화(話)-그 근간을 찾아서」. 이 작품은 제주설화가 한데 어우러져 춤의 언어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독립예술단이 제주춤의 문화자원화를 위해 기획한 제주춤 아홉 번째 시리즈다. 설문대할망 이야기를 빌려 제주섬의 탄생 유래를 춤사위로 풀어내고, 삼성신화와 송당본풀이, 마라도 애기업개들의 이야기를 함께 엮어 제주설화의 근간을 보여주려 했다는 것이 공연 목적이었다.

하반기 작품은 11월 24~25일 제35회 정기공연 「단(丹) 장(粧)-물과 사람의 노래…」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곳곳하게 자신들의 삶을 일구어 온 제주사람들이 불렀던 민요를 춤사위로 풀어낸 것이다. 민요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여 가락을 리듬으로 변환하고, 민요를 음률로 색다르게 표현하는 등 음악의 재구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2007년 독립예술단의 정기공연은 3월 선임된 신임 안무가의 안무실력과 작품경향을 읽을 수 있는 자리로, 일단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예술단의 위상에 걸맞게 작품을 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상, 하반기 두 번의 정기공연 가운데 한 번은 제주문화유전자의 심연을 담은 기획작품이 무대에 올려진다면 제주춤의 문화자원화는 물론 예술단의 기량을 끌어올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상반기 공연의 경우 설문대할망, 삼성신화, 송당본풀이 그 하나 하나 소재만으로도 충분히 독립된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이다. 굳이 옴니버스식 공연으로 얼버무린 것은 당초 예술단이 지향하고 부르짖던 '제주춤의 문화자원화'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앞으로는 탄탄한 기획과 세련된 춤사위, 충분한 공연예산과 준비, 관객과의 소통으로 보다 흡족한 공연무대를 보고 싶다.

하반기 공연의 경우 제주민요를 다른 지방과 확연히 다른 제주의 노래(민요)를 소재로 제주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준다는 취지로 올려진 작품인데, 내용의 신선도는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취지를 얼마나 살렸는지 재고해 볼 일이다.

독립예술단의 특별·초청공연은 도내 축제장과 각종 경축행사장에서 이뤄졌다. 이들 행사는 예년과 다름없는 의례적인 공연이다. 반면 2007년 지역사회소외층을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문예회관을 찾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한 배려는 잊지 말아야 한다. 독립예술단의 존재기반은 제주도민이기 때문이다.

또 독립예술단 해외공연이나 교류공연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도 제주춤의 문화자원화와 세계화를 통한 제주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선양이라는 측면에선 재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도립무용단 2007년도 공연실적

일련번호	행 사 명	공연일자	공 연 장 소
합 계	20개 행사		23회 공연
1	제2회 제주평화기 전국태권도대회	1. 13.(월)	한라체육관
2	2007정월대보름들불축제	3. 3.(토)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3	2007 ASTA 제주총회	3. 2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	제16회 제주왕벚꽃축제	3. 30.(금)	제주시종합경기장
5	제25회 유채꽃잔치	4. 15.(목)	우도면(우도봉) 특설무대
6	제41회 도민체육대회	4. 20.(금)	제주월드컵경기장
7	2007월드클럽챔피언어십	5. 8.(화)	CJ 클럽나인브릿지
8	2007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5. 11.(금)	한라체육관
9	제24회 아시아시니어골프대회	5. 31.(목)	제주그랜드호텔
10	제31회 354(한국)복합지구연차대회	6. 2.(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1	제4회 제주평화포럼 테마퍼포먼스	6. 17.(일)	한라아트홀
12	제4회 제주평화포럼 연계 VIP 행사	6. 22.(금)	샤인빌 리조트
13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 기념 등 경축행사	7. 2.(월)	제주칼호텔
14	제주도립예술단 제34회 정기공연 “설(說)·화(話)- 그 근간을 찾아...”	7. 13.~14. (금, 토)	문예회관 대극장
15	제주안전도시 WHO공인선포행사	7. 30.(월)	제주컨벤션센터
16	ICAR '07국제 학술대회	8. 23.(목)	제주롯데호텔
17	WHO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회의	9. 10.(월) 9. 13.(목)	제주컨벤션센터
18	제46회 탐라문화제 폐막공연	10. 10.(수)	탐동해변공연장
19	제주도립예술단 제35회 정기공연“단 단장粧-물과 사람의 노래”	11. 24.(토) 11. 25.(일)	문예회관 대극장
20	제15회 성산일출제	12. 31.(월)	성산일출봉 특설무대

〈자료제공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

나. 지역무용단체

제주무용의 중심체가 사라진 것은 오래전 일이다. 한국무용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이하 무용협회도지회) 산하에 제주시지부와 서귀포시지부가 있지만, 지도부의 역할을 놓아

버린 지 오래되었다.

2007년도 지역무용단체의 공연 활동도 이런 선상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무용협회도지회는 몇 년째 지원금을 받은 연례사업만 꾸리고 있다.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우리 춤과 멋의 어울림」, 제14회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춤은 파도를 타고」, 제8회 전국청소년해변무용제가 활동의 전부이다. 거의 모든 행사들이 독립적인 예산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고 치러졌다. 행사 내용에 대한 평가는 판단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청소년해변무용제는 예산이 500만 원선에서 치러졌고, 참가팀도 참가를 독려하여 서울·경기·제주지역 등 4개 팀이 무대를 메웠다. 당초 무용제의 취지를 엄정하고 면밀하게 따져서 행사의 존재여부를 냉정히 평가할 때이다. 반면 회원의 기량을 향상시키거나 무용협회 회원들의 춤사위를 보여주는 무대는 볼 수 없었다. 열악한 지역무용계의 사정을 모르지는 않지만, 지역무용계의 지도부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해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주시지부는 단 한 번의 정기공연으로 한 해를 마무리 했다.

서귀포시지부 역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았다. 제7회 서귀포여름무용축제는 단 하루만의 행사이며, 연례행사이다. 말이 무용축제이지 무용을 배우는 초중고생까지 함께 하는 소박한 무용공연이라는 게 정직한 표현이다. 그밖에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2007 무대공연지원 작품 공연을 했다. 둘 다 지원금을 받고 하는 행사였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는 해녀춤, 물허벅춤, 살풀이, 부채춤, 난타, 풍물 등을 선보였다, 무대공연지원작품으로 올린 「태동」은 살풀이춤, 해녀들의 애환을 그린 「숨비소리」, 「소고춤」, 어린이와 함께 하는 제주민속무용이 선보였다.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지원금 성격이 다른데, 옴니버스로 묶어서 은근슬쩍 무대를 채운 느낌이 없지 않다. 문화예술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과 공연작품의 질을 높이려는 것과 적잖은 차이가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무용단체 만의 일은 아니다. 지역문화예술계의 열악한 공연 환경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할 서귀포시지역의 대표 무용단체이기에 그 지원금의 내용은 구분하여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

지역무용계의 지도부 외에 개인이 이끌고 있는 지역무용단체 역시 지원금 없이는 공연을 치러내지 못하고 있다. 2007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도내 농어촌학교 순회공연 등이 그것으로, 지역무용인의 기량을 보여주는 무대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연심무용단, 제주오름민속무용단, 숨비민속무용단, 댄스인제주무용단, 해송민속무용단, 혼비민속무용단, 박경숙전통춤연수원 등이 공연을 한 바 있다. 일부 단체를 제외하곤 도립예술단 무용교실

에서 춤을 익힌 수료생들이 만든 무용단체들이다. 공연 레파토리가 비슷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것은 무용협회도지회와 무용계 지도부를 비롯한 지역무용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자생력 확보는 회원의 레파토리 개발 못지않게 필요하다. 회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노력 역시 제주무용계의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힘써야 할 사안이다.

외부공연으로는 네팔왕실국립무용단과 한국무용협회, 북경중외민간예술교촉진회 예술단이 제주를 찾았다.

네팔왕실국립무용단은 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의 초청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다섯 차례 공연을 하였다. 「바즈라요키니 댄스」, 「아라티 댄스」 등 네팔 고유의 춤을 30여 가지 선보였다고 한다. 한국무용협회는 2007 신나는 예술여행의 일환으로 펼쳐진 전국순회 공연차 제주를 찾았다. 제주무용단의 허벅춤과 부채춤, 박경숙 발레단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이 선보였다. 2006년에는 제주출신 재일교포 강희선이 이끄는 조선무용연구소 무용단과 백현순대구무용단 등 4개 팀이 제주도민과 춤사위로 만났다.

다. 개인발표회

제주에서 개인발표회를 보는 것은 쉽지 않다. 2006년에는 김정희와 김은희가 개인발표회를 열었다. 2007년에는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지은이 제주무용계 체면을 세웠다. 이지은은 체코 프라하국립예술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무용인으로 체코 디스크극장(2월 11일) 「객체와 알갱이」라는 작품을 발표하여 유럽무대에 데뷔하였다. 그녀는 심사위원과 평론가들의 좋은 평가 속에 앵콜 공연을 가진데 이어 4월에도 현지 공연을 올렸다. 8월에는 에딘버러 국제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였으며, 12월에는 체코 브르노 바르카극장 초청으로 개인공연을 가졌다. 또 그녀는 라이프찌히가 주최하고 BMW Werk가 후원한 독일 댄스 솔로 경연대회(Best German Dance Solo Competition)에서 3위를 수상했다. 수상작은 「두번째 침묵」으로, 이씨의 안무로 벨기에 유학생 우경희가 춤을 추었다. 이 대회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라이프찌히에서 열렸으며, 한국인이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제주해송민속무용단(단장 윤경월) 단원 12명이 제8회 전국국악예술경연대회에서 해녀무로 우수상을 받았다. 세계예술교류협회가 주최하고 국악교육신문사가 주최한 대회로 9월 9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열렸다.

라. 전국무용제 제주대표 출전

제16회 전국무용제에 참가한 제주대표팀이 이번에도 대부분 무용 비전공자로 채워져 제주무용계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4월 무용협회도지회가 참가신청을 공모했으나 공모단체가 없자, 이지연무용단을 대표로 내보냈다. 이지연의 전공은 발레이지만, 그녀가 출전한 부문은 한국무용부문(창작)이었다. 2001년과 2003년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아마추어 무용단을 제주대표로 내보냈고, 2002년에는 동일한 이유로 참가자체를 포기했다. 2004년에도 비전공자로 채워진 무용단을 대표로 출전시켰다고 한다.

작품 준비가 덜되었는지, 당초 제주대표 작품은 제주 4.3사건을 소재로 한 「제주바다의 눈물」이었으나 전국무용제 출전작품은 「땅에 스민 시간」이다.

도내 무용계 내부의 갈등과 관련이 없지 않지만, 제주무용계의 자존을 걸고 출전하는 전국대회에 수 년째 비전공자들로 채워진 무용단을 내보내는 것은 몹시 속상한 일이다. 무용협회도지회는 결단코 앞으로는 이같은 불명예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 화합과 결속에 힘써야 할 것이다.

3. 지역무용계 현안과 과제

제주무용계에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용협회도지회의 내부 갈등과 제주도립예술단의 안무자 선임을 둘러싼 논란은 지역무용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2006년 제주시지부의 내홍에 이어 무용협회도지회의 회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은 연초부터 무용계 풍향계를 가늠하게 해주었다. 무용협회 회원 19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선 단독후보로 추천된 이창훈 지회장이 재선되었다. 서귀포시지부가 빠진 총회는 모양새부터 좋지 않았다. 논란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무용계 일각에서는 무용협회도지회가 운영규정을 무시한 채 총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도지회 측은 도지회 회원으로 총회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도지회는 총회 규정이 제주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고쳐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열린 마음으로 무용계 단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도립예술단 문제는 최근 도민사회의 눈총을 받기에 충분하다. 예술단 해외공연 문제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문화진흥본부와 갈등을 빚더니, 2007년에는 신임 안무

자의 선임을 놓고 논란을 일으켰다. 예술감독과 협의절차를 무시한 채 새 안무자가 선임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제는 일파만파로 번졌다. 보직단원들의 사퇴서 제출, 예술단 노조 결성 등으로 급기야 단원 재위촉문제로 확산되었다.

제주도립예술단은 제주에서 유일하게 전공자들로 구성된 공립예술단이다.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들이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설립된 이 예술단은 그동안 제주춤의 자원화 및 세계화에 힘썼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일정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도립예술단의 이 같은 행태는 공연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활동 건수가 34건에서 20건으로 줄어들었다. 정기공연을 보러온 관객수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작품 기획과 안무, 관객과 소통 측면에서 냉정한 자체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도립예술단은 도민의 예술단이다.

도립예술단 안무자 선임문제는 도민을 염두에 두고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언론의 보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나오며

제주무용계는 열악한 환경을 핑계로 침체된 활동을 합리화해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수 년째 무용계 내부갈등과 반복되는 현안으로 한 발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무용협회도지회 회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과 전국무용계 제주대표 무용단의 구성문제, 창작부재의 무용공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소리없이 성실하게 무용단을 이끌며 제주무용계를 위해 힘써 온 무용인들이 없지는 않다. 이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7년 제주무용계는 지도부인 무용협회도지회와 도내 무용계의 자존을 자처하는 도립예술단 문제로 어느 해 보다 풍파가 많았다. 지역무용계에서 스스로 위상과 역할을 깊이 반성하고 전망을 내놓아야 한다.

성장은 아픔을 동반한다. 성장을 위한 아픔이 성장의 거름으로 놓이고,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글 / 김 희 숙(제주춤아카데미 대표)

2008 제주 문예연감

문 화

제주영상산업, 국제화의 길 모색

1. 들어가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영상산업은 영상산업 그 자체만으로 산업화로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산업구조를 보면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커 기간산업으로써 그 역할을 독특히 해 왔다. 최근 들어 관광산업의 침체로 제주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당연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제주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고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영상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는 우리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제주관광산업이 여러 가지 악재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영상산업을 통한 제주관광사업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으로 위축된 한국영상산업 시장은 내수에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는 지역의 영상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제주 화산섬이 갖는 환경적 특수성과 영상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제작사들의 로케이션 유치도 기대해볼만 하다는 것이 최근 제주를 다녀간 중화권 제작 관계자들의 조언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영상산업에 필요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결코 능사가 아닌 것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도가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개관한 지 만 2년을

맞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액세스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지역의 민간단체에서 영상관련 문화행사 및 다양한 활동, 그리고 의원발의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안은 이러한 영상산업을 위한 활동들이 법률적 토대를 이루고 있어서 2007년은 제주 영상산업의 줄타동기(啾啄同機)의 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주 로케이션 현황 및 문제점

가. 제주 로케이션

2006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으로 2007년은 우리나라 영화시장에 위기와 위축이 심했던 한 해였을 것이다. 제작비 10억 미만의 저예산 영화제작이 많아진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는 제작사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제작비를 줄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가 하면 특정한 지역은 아예 기피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제주지역 로케이션은 물류비용으로 제작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로케이션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실행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지난해 제주에서 로케이션은 전년도에 비해 편수로 약 20%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외국 작품들이 제주에서 제작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들이 제주에 체류한 기간은 적게는 수일에서 최장 5개월까지 다양한데 그 중 30일 이상 체류한 로케이션은 임필성 감독의 「헨젤과 그레텔」이 50여 일, 김해곤 감독의 「숙명」은 45일, 또한 저예산 영화로 제작된 제주출신 부지영 감독의 「지금 이대호가 좋아요」는 35일간 제주에서 장기 제작된 영화이다. 이들이 쓰고 간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는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2007년 제주 여름의 초입은 제2의 한류 열풍을 점화하기 위한 시동으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한류 톱스타 송승헌, 권상우 주연의 영화 「숙명」은 시작 전부터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웃 일본 관광객들의 스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놀라움 그 자체였고, 영상산업이 관광산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좋은 사례였다.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제주에서 소화하는 영화

「숙명」은 제주의 유명경관지와 도심 곳곳에서 40여일 동안 촬영이 계속되었는데 시가지에서 촬영이 있는 날은 불가피하게 교통을 통제하는 등의 불편함이 초래되어 원성과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가 큰 도움이 되어 별다른 불상사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어 제주가 영상도시로서 새로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 좋은 기회였다.

최근 들어 제주출신 영화인들의 활동들이 활발해진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단편 영화로 능력을 인정받은 제주출신 부지영 감독은 본인이 직접 쓴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시나리오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공모한 2006년 HD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지난해 10월, 한 달 가량 제주에서 로케이션이 이루어졌는데, 2008년 전주국제영화제와 KBS에서 방영이 확정되었다. 또한 영화배우 차승원 씨가 주연한 곽경택 감독의 영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제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제주 일부에서 촬영되었다.

나. 제주지역 로케이션 인프라 확충 시급

매해마다 많은 작품들이 제주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한결같은 불만은 제주는 2% 부족 또는 반쪽 로케이션이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한다. 이는 실내 촬영을 위한 별도의 스튜디오가 없어서 불편함을 토로하는 것이다. 한곳에서 모든 촬영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면에서 이로운 점이 많은데 제주는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시시각각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 때문에 야외 로케이션 시 애를 많이 먹고 있어서 날씨가 고르지 못한 날은 하늘만 보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천후 다목적 실내 스튜디오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3. 2007년 제주, 영상문화예술 결산

가. 영화 상영회

2007년은 전년도에 못지 않게 다양한 영상관련 행사가 풍성한 해였다. 특히 제주영상위원회가 제주시로부터 제주민속관광타운 건물을 위탁받아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영상미디어센터를 개관한지 1년이 되는 해였다. 이와 관련된 행사와 영상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각계에서의 영상관련 행사가 예년보다 유독 많았던 한 해였다.

2007년 5월에는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영화 제작 및 배급사인 (주)컴트루픽처스(대표이사 오주연)가 문을 열어 다양한 나라에서 잘 만들어진 좋은 영화들을 수시로 상영하고 또한 도내 영화마니아들을 위한 영화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계획을 세워 출발했다. 컴트루픽처스는 영화상영 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로 논술하기」, 「디지털 단편영화 만들기」 등도 시행하고 있고 첫 배급 사업으로 일본 홋카이도 조선학교에 다니는 제일 조선인 3, 4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구성한 「우리학교」를 개봉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제주도내 영상단체인 사단법인 씨네아일랜드가 계속 사업으로 한 달 단위로 특정 감독 및 테마를 골라 주 1회 마련되고 있는 정기상영회는 지역에서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찰리 채플린 영화 등 과거를 추억할 수 있는 영화들을 선별하여 상영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영화관련 행사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영화 「불편한 진실」이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에서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2006년 아카데미상을 수상했고 2000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엘 고어(Al Gore)가 주연으로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사단법인 제주환경교육센터는 8월에는 가족과 함께 보는 환경영화 상영 행사를 가졌는데 이는 시민강좌 형태로 서울환경영화제에 출품했던 단편 환경영화 6편을 상영했다.

제주영상미디어센터는 개관 1주년 기념행사로 제주영상위원회와 서울독립영화제 2007 집행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서울독립영화제 순회 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는 제주에서 접하기 어려운 작품성이 뛰어난 단편영화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행사여서 한층 의미를 더하였다.

이번 상영회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모두 27편의 영화가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상영되었는데 도민들에게 색다른 독립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 제주여성영화 상영회

제주여민회가 제주에서 여덟 번째 준비한 여성영화 상영회는 매회마다 높은 관심으로 단단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8회 여성영화상영회는 ‘이 땅에 함께 사는 여성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여성영화제(9회)와 여성인권영화제(2회)에서 선보인

영화들 가운데 여성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보편적 일상들을 주제로 한 영화 15편을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제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선보였다. 이번 영화상영회의 특징은 일상에서의 벗어남이라는 컨셉으로 영화 상영 일부를 야외로 옮겨 놓은 점이다. 영화는 폐쇄된 공간에서만 감상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도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도 매우 이채로웠다.

□ 창작 애니메이션 상영 및 체험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은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정도에 그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전문가가 아니면 좀처럼 접하기가 어려운 분야였다. 제주영상미디어센터는 개관 1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와 공동으로 인디애니페스트 2006 수상작 상영과 클레이애니메이션제작 체험행사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애니메이션 「누구세요」를 연출한 이윤빈 감독과, 애니메이션 「SHAKE」를 연출한 민재웅 감독이 참여한 가족들과 함께 찰흙을 이용해 애니메이션제작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 시사회

영화 「서편제」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는 임권택 감독의 백 번째 작품으로 유명한 「천년학」이 그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4월 4일 제주에서 시사회를 가졌다. 작가 이청준의 「선학동 나그네」가 원작인 천년학은 전라남도 장흥 세트장을 비롯해 제주에서도 많은 분량이 촬영되었는데 특히 성읍민속마을, 용눈이 오름, 송악산 등 제주가 자랑할 수 있는 절경이 영화를 통해 소개되었다. 또한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뮤지션인 제주출신 양방언이 음악을 맡아 새로운 감동을 안겨 주었다.

어린시절 동화의 아련한 추억이 공포와 함께 새롭게 우리에게 선보인 영화 「헨젤과 그레텔」은 영화 「남극 일기」와 「멋진 신세계」를 감독한 임필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제주에서 장기제작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주 한라산의 천연림이 극중에서 초자연적인 분위기로 배우들의 연기를 뒷받침해 영화를 한층 수준 높은 영상으로 만들어 내어 아낌없는 환영을 받았다.

나. 영상인구 저변을 위한 미디어교육 및 행사

2006년 7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설립된 제주영상미디어센터는 날로 변화하는 미

디어 환경에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쉬’와 시청자 주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의 공적 접근인 ‘퍼블릭 액세스’ 사업은 나름대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11월 제주영상미디어센터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디지털영상제작과정에 참여했던 30대에서 50대까지 8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노리’ 팀은 처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사진」이라는 작품으로 이듬해 1월 제9회 서울여성영화제 아시아단편 부문 출품작 공모에 참여했다. 입상은 못했으나 순수한 아마추어들이로서 열정은 매우 신선하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좋은 시도였다고 평가되었다. 그리고 2월부터 주 2회 시작된 장애인 영상교육은 ‘마음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자’ 라는 슬로건으로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제주영상미디어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영상제작 교육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꿈을 현실로 바꿔 놓은 의미 있는 교육으로 평가받았다. 휠체어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영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가식적인 행위에 그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으나 휠체어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특수 장비들을 이용해 촬영을 하고 손이 아니면 발로 편집을 하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며 완성된 작품들을 시사하는 수료식장은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였다. 이미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에는 영상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로 이뤄진 영상집단 <오뎅>이 구성되어 계속 창작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제주영상위원회는 방송위원회와 광주지방노동청이 시행하는 시청자복지지원사업과 지역 고용, 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6,700여만 원을 지원받아 낙도 및 소외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영상제작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제주에서는 대구, 김해, 제주 영상미디어센터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청소년여름캠프와 세계 여러 나라 청소년들이 모여 영상물을 만드는 영상창작캠프가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나흘, 사흘씩 제주도 일원에서 열렸다. 각 지역 미디어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캠프 ‘Young-미디어캠프 2007’은 성산일출봉과 제주민속촌박물관 등에서 미디어로 여름나기를 주제로 청소년 영상캠프가 열렸다. 또한 이번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과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청소년국제영상캠프는 제주에서 처음 개최한 행사로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및 미국 등에서 38명의 청소년들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영상물들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방송(www.ssro.net)를 통해 각국에 중계되기도 했다.

다. 영화제

‘아주 특별한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제주 유일의 전국규모 독립영화제인 제주 영화제는 2007년 6회를 맞으며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제주시 노형동 프리머스 시네마에서 열렸다. 이번 6회 영화제는 경쟁 부문인 본선 진출 작품인 「그녀의 은밀한 비밀」, 「가족의 발견」 등 30편을 포함하여 모두 41개 작품이 이번 영화제 기간에 선 보였다. 3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선정된 최우수 작품상은 김영제 감독의 「알게 될 거야」가 선정되었고 우수작품상에는 이성태 감독의 「십분간의 휴식」이, 심사위원특별상에는 이진우 감독의 「궁금해요 그대 팬티」가 선정되었다. 제주도민과 호흡하는 특별한 축제로 뿌리내리고자 하는 취지로 열린 이번 영화제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내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조심스런 분석도 있었다.

또한 8회를 맞는 장애인 인권영화제는 2007년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제주국립박물관에서 열렸다.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주최로 열린 이번 영화제는 ‘Are You Ready?’라는 슬로건으로 국내작품 10편, 국외작품 3편 등 모두 13편이 상영되었다. DPI 인권영화제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되고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하고자 2000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이번 영화제의 폐막작은 제주DPI에서 장애인영화사전제작지원에 의해 만들어진 김이희진 감독의 「그래, 나 혼자 사는 거야」가 상영되어 장애여성들의 독립된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4. 외국 작품, 제주 로케이션

제주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지도자들의 즐겨 찾는 명소로 중국 내에 널리 소개됨으로써 제주가 중화권 관광객들의 유명관광지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2007년 한·중 교류의 해를 맞아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한 영화제작을 통해 중국내에서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한류 열풍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영화 및 드라마 제작사인 북경동주문화전파유한공사는 2007년 말에 방영 예정으로 TV영화인 「제주 막걸리 아저씨」가 지난 2007년 10월, 20여 일 동안 제주 전 지역에서 제작이 이루어졌다. 또한 노벨 문학상 수상 후보로 매년 거론되고 있는 현재 프랑스 최고의 작가로 존경받고 있는 ‘르 클레지오’의 자전적 다큐멘터리 제작이 2007년 11월 제주에서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다큐멘타리는 프랑스와 제주에서 각각 촬영되었다. 제주 섬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섬 문화는 작가 '르 클레지오'가 늘 동경해오던 환경으로서 작가의 문학적 세계와도 비슷해 제주의 초자연적인 환경을 배경으로 제작되었다.

5. 영상산업육성 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

가. 테마파크

□ 태왕사신기세트장 관광자원화

김종학 감독이 연출한 「태왕사신기」는 캐스팅 당시부터 대단한 화제를 몰고 왔다.

고구려 시대 광대토대왕의 정복의 신화에 관한 드라마라는 점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한류의 주역인 배용준이 주인공으로 등장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기대를 했다. 특히 제주에는 두 군데 세트장이 세워졌는데 하나는 묘산봉 관광지구에 들어선 국내성 세트이다. 세트라기보다는 국내성을 그대로 재연해 놓은 건축물로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제주의 새로운 명물이 탄생하는 기회가 되었다. 태왕사신기 드라마는 3D환타지 드라마로 영화 이상의 훌륭한 영상이 방송을 통해 방영되면서 매 시청률 30% 이상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도 올렸다. 드라마로써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한 영향으로 세트장도 많은 관광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면서 하루 유료 입장객 평균 1,000여 명씩 찾는 제주에서는 유명한 영상관련 테마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 이처럼 태왕사신기 세트장을 계기로 드라마 혹은 영화로 인해 지역의 관광산업이 활기를 띌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나. 다목적 실내 촬영 스튜디오 필요성 제기

제주 로케이션의 취약점은 변화무쌍한 기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비 날씨 혹은 강풍 등은 촬영팀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만들곤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영상물제작은 내용에 따라서 분량은 다르겠지만 항상 실내 촬영과 실

외촬영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제작이 이루어지곤 한다. 날씨 변화와 같은 실외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촬영이 어렵게 되었을 때 실내 스튜디오가 마련되었다면 실내 촬영 분량을 미리 촬영할 수 있어서 전체 제작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는 자연적인 조건은 훌륭하나 실제적인 영상제작의 시설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여 점점 제주가 로케이션 기피지역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전천후 실내전용스튜디오 건설을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 부문 중간보고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무공해 산업인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콘텐츠 산업, 그리고 영상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수중촬영도 겸할 수 있는 다목적실내 스튜디오 건설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제주는 관광산업을 위한 새로운 자원개발에 심혈을 쏟고 있다. 영상산업을 통한 관광산업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중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는 세계에 몇 군데가 없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제주 해안에 다목적 스튜디오가 마련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제작팀들이 제주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외국의 경우에서도 입증되고 있듯이 이러한 다목적 스튜디오는 영상물제작 시설로서만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과 체험이 가능한 관광자원으로서도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6. 제주영상산업의 새로운 전기,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 마련

2006년 2월에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자치사무, 자치조직 등 자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는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21세기를 위한 국제자유도시 준비도 큰 틀에서 제시되고 있다. 많은 내용 가운데 제181조는 제주지역에서 영상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영상산업 전반에 걸쳐 육성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제주지역에서도 영상산업이 법률적 보호 아래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2007년 1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영상 관련 산업과 업무가 제주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되기 위한 발판이 만들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조례는 제주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또한 심의기구인 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상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상전문인력의 양성과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촬영장 설치 지원과 영상관련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7. 에필로그

영상산업을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큰 범주에서 본다면 성급함과 조급함은 부실과 졸속으로 끝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과 기술이 투입된다 해도 그 지역의 문화적 마인드와 정서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사상누각이 되어 버릴 것은 자명한 일이다.

세계의 각 나라는 자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산업구조를 바꿔 놓는가 하면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과 문화를 팔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불기 시작한 문화콘텐츠산업,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상품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제주의 미래를 풀기 위한 해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 글 / 고 창 균(제주영상위원회 사무국장)

2007년 제주지역 축제 개관

1. 들어가며

2007년 제주에서 열린 축제는 60개였다. 종류별로 분류하면 문화축제는 26개, 산업·관광축제는 22개, 레저·스포츠축제는 4개, 기타축제는 8개였다. 2006년보다 10여 개의 축제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의 축제 통폐합 권고 수용을 비롯하여 축제가 아닌 단순 행사로 전환하거나 은어축제와 같이 관련 테마상품의 수확 저조, 격년제 개최 등의 이유로 제주프리마켓, 삼다꽃축제, 뷰티페스티벌, 서귀포뚜벅이축제, 성산조개바다축제, 바람예술축제, 강정천올림은어축제, 칠선녀축제, 감귤축제, 가족과 함께하는 별자리축제, 여성축제 등이 개최되지 않았거나 단순 기념행사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박물관 문화엑스포를 비롯하여 제주다민족문화제, 樂·올래·PLAY, 김만덕의 나눔 쌀 천심 쌓기, 제주책축제 등 신규로 시작된 축제도 있었다. 축제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이벤트성의 행사로 분류하여 축제에 넣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60개의 축제를 월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2007년 월별 축제 현황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축제수	7	1	5	4	5	5	8	6	3	10	3	3	60
백분율	11.7	1.7	8.3	6.7	8.3	8.3	13.3	10.0	5.0	16.7	5.0	5.0	100

제주에서 축제가 가장 많이 열린 달은 10월로, 전체 60개 가운데 10개가 열려 16.7%를 차지했다. 10월에 이어 7월이 8개, 1월이 7개, 8월이 6개의 순으로 열렸으며 가장 적은 달은 2월로 1개가 열렸다. 축제가 가장 많이 열린 10월에는 탐라문화제를 비롯하여 마을축제 등 문화축제 6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1월에는 7개의 축제 가운데 성산일출제를 비롯한 마을단위의 일출제 등 6개의 일출제가 열렸다.

지역별로 열리는 축제를 살펴보면 제주시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다소 많게 나타났다.

〈표 2〉 2007년 지역별 축제 현황

지 역	제주시	서귀포시	기 타	계
축제수	35	21	4	60
백분율	58.3	35.0	6.7	100

※ 기타축제는 제주도 전역 또는 한라산 등에서 열리는 축제임.

2. 제주도내 지역축제의 현황

가. 문화축제

전통문화나 예술을 테마로 한 문화축제는 26개가 개최됐다. 2007 정해년 탐라국립춘궁놀이,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영등환영제·송별대제, 제14회 4·3문화예술축전, 설문대할망페스티벌, 2007 제주박물관문화엑스포, 제5회 서귀포예술인축제, 제18회 탐라합창제, 제7회 탐라전국합창축제, 2007 한여름밤의해변축제, 산지천예술마당, 제3회 법화사 연꽃축제, 제12회 제주국제관악제, 2007용연야밤재현축제, 제6회 제주영화제, 제주다민족문화제, 제10회 이중섭예술제, 제6회 국제차문화축제, 제13회 서귀포칠십리축제, 제14회 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제46회 탐라문화제, 제16회 덕수리전통민속축제, 제6회 2007 제주 '머리에꽃을' 거리예술제, 제6회 대정고을추사문화예술제, 제8회 한라산영산대제, 제주예술제, 2007 제주교육문화축제(제11회 학생종합예술제, 제18회 교원예술제) 등이다.

□ 2007 정해년 탐라국입춘굿놀이

새철 든다는 입춘 절기에 맞춰 2월 3일과 4일, 이틀간 열렸다. 제주시청 앞마당에서 열린 낭쉐(木牛)코사를 시작으로 제주목관아, 관덕정 등 제주시내 일원에서 신명난 한바탕으로 펼쳐졌다. 이 축제는 한 해 농사의 풍년과 풍어, 도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문화축제다. 입춘이 들기 전, 대한 5일 후부터 입춘 3일 전까지인 신구간(新舊間)에는 제주가 한바탕 들썩인다. 그동안 지상에 내려와 있던 1만 8천 신이 하늘로 잠시 올라간 신구간을 이용하여 제주도 각 가정에서는 이사를 하거나 변소를 고치는데 이때는 동토가 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기간이 지나면 다시금 지상에 내려온 1만 8천 신에게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굿을 펼치는데 바로 탐라국입춘굿이다.

탐라국 이후 지속되어 오다 일제강점기에 맥이 끊긴 후 1999년에 복원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특히 관객 참여행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축제로 펼쳐졌다. 참여 행사 중 가장 돋보인 프로그램은 첫날인 2월 3일 저녁에 목관아에서 행한, 흥함을 주는 '새(邪)'를 잡아 놀이를 하면서 액을 몰아내는 민속놀이인 방액놀이를 도민을 대상으로 모집한 18명의 참가자가 참여했다. 2007년 탐라국입춘굿놀이의 주요 프로그램은 열림굿, 제장울림, 낭쉐코사, 농사풀이, 낭쉐몰이, 방액놀이, 낭쉐모시기, 거리도청제, 입춘굿, 입춘탈굿놀이, 세경놀이, 대동놀이 등이다.

「특별자치도시대 입춘굿놀이 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또 입춘장터, 문화상품 판매, 화가 박재동 씨의 얼굴 그리기, 서예가 현병찬 씨의 입춘가훈쓰기, 조성택 씨의 신년운수보기를 비롯한 부대행사와 맷돌로 재료를 갈아 떡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가족사진 무료 촬영, 조릿대차를 이용한 다도, 입춘춘첩쓰기와 서예 퍼포먼스, 대형 연 만들기, 탁본뜨기 등의 전통문화행사도 성대하게 열렸다. 낭쉐몰이에는 예년에 비해 많은 민속풍물패가 참여했는데, 이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승격 후 제주시에 통합된 옛 북제주군의 읍, 면 풍물패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그 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 제14회 4·3문화예술축전

4·3사건 59주년을 맞아 '4·3문화예술제'에서 '4·3문화예술축전'으로 명칭을 개칭하면서 행사도 확대하였다. 1994년 개최된 이래 문학, 미술, 연희 등 예술장르 중심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상생의 바람결을 타고'를 주제로 내건 이번 축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한국민예총제주도지회 주관으로 3월 31일부터 4월말까지 한 달 동안 제주시 관덕정, 문예회관, 신산공원 등에서 열렸다. 4·3추념 시화전, 사진전, 위령제 사진전, 전야제, 위령제 식전행사, 미술제, 평화음악제, 찾아가는 해원상생굿,

문학기행, 평화인권 마당극제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전년도에 비해 국비의 예산이 1억에서 3억으로 대폭 증액되었지만 국고지원이 2월초에야 확정되어 축제 준비기간의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전야제와 거리극을 신산공원과 제주 시청에서 관덕정 일대로 옮겼으나 관람객 참여에는 한계를 보임으로써 관객과의 소통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 설문대할망페스티벌

2007년 처음으로 제주도관광지관리사업소 제주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주최로 제주돌문화공원에서 5월 한 달 동안 개최됐다. 설문대할망을 테마로 조성된 공원의 이미지에 맞게 설문대할망 관련 영상물 상영, 전설 및 전설지 소개, 설문대할망 전설그림 기획전, 위령탑 쌓기 관람객 체험을 비롯하여 설문대할망 강연회, 초등학교 대상 설문대할망 이미지 그림그리기마당, 설문대할망 전설지 답사, 설문대할망제, 설문대할망전설 구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또 부대행사로 제주지역 박물관의 블루오션 찾기 토론회, 화산학술 심포지엄 등도 개최됐다. 설문대할망은 제주의 창조신으로 제주사람들이 할망의 속옷을 만들 명주 100필을 구해오면 육지로 잇는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약속에 1필이 부족하여 결국 제주인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다는 전설은 제주인들의 끝없는 갈망을 담아내고 있다. 360여 개의 오름, 오백장군과 한라산의 철쭉, 발 한 쪽은 한라산 백록담에 다른 한 쪽은 관탈섬에 걸렸다는 거녀(巨女), 할망이 빠져 죽었다는 가마솔과 또 다른 장소인 물장오리 등은 축제로써 많은 이야기 거리를 담고 있다.

제주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아직껏 뚜렷한 설문대할망의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은 시사점을 던져주었으며 축제로서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선부른 접근이나 과욕은 금물이다. 아이디어와 스토리텔링이 있다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적인 기획력이나 조직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 또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섬문화축제의 실패라는 귀중한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 2007 제주박물관문화엑스포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립민속박물관이 주최하는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제주도내 30여 개의 박물관 중에서 24개의 박물관이 참가하여 (사)제주도박물관협의회 주관으로 제주시한라체육관에서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민속문화의 해는 국립민속박물관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매년 개최해나갈 계획으로 제주지역이 전국

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다양한 기념행사의 하나인 박물관문화엑스포에는 전시와 공연이 함께 마련되었는데, 11개 테마에 24개관으로 구성된 박물관별 테마전시관에는 제주민속박물관을 비롯하여 미니어처박물관, 닥종이인형박물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테마에 맞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단순한 전시에서 벗어나 문화체험 행사, 부대행사, 초청행사 등도 마련되었으며 공연 역시 제주어 가요를 비롯하여 어린이마당극, 마임, 모듬북공연, 사물놀이, 아프리카민요 공연 등이 관람객과 함께 했다. 또 행사장 입구에는 제주돌담을 직접 쌓아보는 제주올레담 쌓기 체험 행사도 열렸다.

이번 엑스포에서 가장 많은 눈길을 끌었던 곳의 하나는 제주의 바람을 모티브로 설치미술가 김해곤(섬아트연구소 대표) 씨가 만든 설치미술작품 「제주섬에 부는 문화의 바람」으로, 가로 38m 높이 13m의 크기에 800여 개의 대나무로 표현하여 화산이 분출하는 모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제주민속 문화의 해 행사 일환으로 2007 제주민속 문화의 해 제주민속한마당, 2007 제주민속문화의 해 기념 제주방언 경연대회 등을 비롯하여 30여 개의 행사들이 연속적으로 열렸는데 사전 홍보부족, 참여기관간의 유기적 관계 결여 등으로 많은 부분에 미숙함이 노출된 행사였다.

□ 산지천예술마당

문화관광부 상설문화프로그램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이 행사는 제주도 주최,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주관으로 7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7시 30분부터 9시까지)에 제주도 산지천 음악분수대 광장에서 열렸다. 지원금 3,000만 원과 자체예산 5,000만 원 등 모두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주도내 문화예술단체뿐 아니라 전주, 청주, 서울 등 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까지 초청하여 음악, 국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공연예술 장르를 비롯하여 사진, 미술 등 전시예술작품도 함께 선보였다. 제주 시에서는 이번 예술마당을 앞두고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4개국 언어로 작성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공항과 부두에 비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제의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풀배너와 현수막 등을 부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여느 행사보다도 참여도가 높은 행사로 평가됐으며 관광객들에게는 야간 볼거리 제공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성과 때문에 우천으로 치르지 못한 일정을 주중인 목요일을 선택하여 8월 9일과 19일 추가로 갖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 2007 용연야밤 재현축제

선인들이 풍류를 즐기던 명소였던 제주시 용연에서 8월 26일 제주시 주최, 제주문화원 주관으로 열렸다. 1999년에 동굴소리연구회(회장 현행복)에 의해 용연달맞이선상음악회로 출발하여 2001년 제3회부터 용연야밤 재현축제로 변경하여 열리고 있다.

2007 용연야밤 재현축제는 부대행사·식전행사·본행사로 나눠 오후 1시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졌는데, 식전행사로 오후 7시부터 산지천에서 용연에 이르는 경축 해상퍼레이드에 이어 동·서한두기 풍물놀이패의 길트기 놀이가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오후 7시 30분부터 본행사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선상음악회가 열려 제주탐라예술단의 용연 선왕굿놀이와 해녀 지들임을 비롯한 무용가 김희숙, 여창가곡 무형문화재 조순자, 해금 변중혁, 거문고 김성경, 성천스님 등이 출연하여 공연 무대를 이끌었다. 이어 세계자연유산 등재 축하 공연으로 제주시립교향악단과 제주시립합창단으로 구성된 제주시립예술단(총지휘 이동호)의 '바다의 대합창'과 테너 현행복 씨 등이 출연해 '가고파', '이어도사나', '서우젓소리', '카르미나 부르나' 등을 불렀다. 한편 부대행사로 영주음사 주관의 한시백일장, 대한시조협회제주지부의 시조경창대회도 열렸다.

□ 제6회 제주영화제

사단법인 제주씨네아일랜드 주최, 제주영화제 집행위원회 주관으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프리머스시네마제주에서 열렸다. 제주 유일의 전국 규모 영화제인 제주영화제는 부문경쟁을 도입한 비경쟁 독립영화제로 진행되었다. 경쟁부문에서 최우수작품상에 김영제 감독의 「알게 될 거야」, 우수작품상에는 이성태 감독의 「십분간의 휴식」, 심사위원특별상에는 이진우 감독의 「궁금해요 그대 팬티」가 수상했다. 한편 신설된 고풍TV시청자상에는 문제용 감독의 「쌍둥이들」이 선정됐으며 16인의 관객심사단이 선정하는 관객상은 수상작품을 내지 못했다. 심사위원은 「괴물」을 만든 영화 제작·배급사 청어람의 최용배 대표와 「바람난 가족」을 제작한 심보경 씨, 다큐멘터리 「꼬레앙 2495」로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 운파상을 수상한 하준수 국민대 시각디자인과 교수가 각각 맡았다.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알게 될 거야」는 정규직이 되려는 계약직 교사 영숙과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받으려 애쓰는 여학생 소영의 관계를 통해 여교사와 여학생의 권력구도를 세밀하게 그렸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본선 진출작 30편을 포함해 모두 41개 작품이 상영되었다. 개막작은 제주 대학생들의 6·15 대장정인 이경석 감독의 「청춘아, 한번쯤 미쳐보자!」와 김동만 감독의 「이 땅에 그리움 있다」, 구혜희 감독의 「4·3 희생자 암매장 발굴-해원」 등 세

작품이 상영되었으며 영화제 기간에는 부대행사로 본선진출 감독과 영화인, 관객이 하나가 되는 ‘제주영화제의 밤’ 행사도 개최했다.

□ 제10회 이중섭예술제

한국 현대 미술사의 거목인 이중섭의 삶과 예술을 기리기 위한 제10회 이중섭예술제가 서귀포시 주최, 한국예총서귀포지부 주관으로 9월 6일부터 9일까지 이중섭미술관 일원에서 열렸다. 이중섭을 소재로 삼은 학생미술실기대회 및 이중섭 그림 원화작품 전시, 이중섭 문학백일장, 시와 춤, 거리공연,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이중섭예술제는 첫날인 6일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중섭 거리에서 김용길 시인의 시 낭송, 최창덕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인 승무 공연, 서귀포칼호텔에서 「2007이중섭과 서귀포」 주제의 세미나 등이 열렸다. 7일에는 시민 한마당 잔치와 ‘樂·올래·PLAY’ 거리공연, 8일에는 이연심 예총서귀포지부장의 태평무 공연, 서귀포어린이 무용단의 공연 등이 펼쳐졌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백일장과 미술실기대회 시상식, 제주 민요 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이중섭 예술제에 맞춰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추억 속에 다시 그리는 서귀포의 꿈」을 주제로 열린 이중섭미술관 2007특별전시전에는 현재 이중섭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9점과 함께 가나갤러리를 통해 대여 받은 「새와 아이들」, 「싸우는 소」 등 11점 등 모두 20점의 원화가 전시되어 여느 해보다 많은 이목을 끌었다.

□ 제13회 서귀포칠십리축제

칠십리축제의 주 테마인 ‘칠십리’는 진시황제가 보낸 서복이라는 사람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정방폭포를 거쳐 서쪽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서귀포(西歸浦)라는 지명이 탄생된 이래, 조선 효종 때 제주목사를 지낸 이원진이 쓴 『탐라지』에 ‘서귀포는 정의현청(지금의 표선면 성읍리 위치)에서부터 서쪽 70리에 있고, 원나라에 조공을 바칠 때 순풍을 기다리던 후풍쳐였다.’는 기록에서 유래하고 있다.

태풍 나리로 두 차례나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천지연 야외광장 및 서귀포시내 일원에서 열렸다. 서귀포시 주최, 서귀포시축제위원회 주관으로 ‘서귀포의 꿈과 사랑, 그리고 칠십리’라는 주제로 펼쳐진 서귀포칠십리축제는 서귀포시 관내 17개 읍·면·동 주민들의 대동과 화합의 한마당 잔치로 펼쳐짐으로써 태풍 나리로 시름에 잠긴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 또 각 읍·면·동에서 가지고 온 물·흙·불을 한자리에 모으는 삼합제가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3일간

일정이지만 당초 예상했던 15만 명을 훨씬 넘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참여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칠십리축제는 연초부터 행사개최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는 축제의 구조조정 및 내실화를 위해 제주도내 축제들에 대한 통폐합 추진에 따라, 같은 축제 추진조직(서귀포시축제위원회)이 주최하고 두 축제가 모두 서귀포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칠십리축제와 칠선녀축제에 대한 통합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발은 있었으나 제주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와 혁신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통합을 수용하여 개최하는 칠십리축제였기에 더욱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서귀포칠십리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2007유망축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명실공히 자리를 잡고 있으며 칠십리축제만의 차별성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면 문화관광부의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로 더욱 발전해 나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제46회 탐라문화제

「천년 탐라문화! 세계 문화유산으로...」를 주제로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주최, 탐라문화제집행위원회 주관으로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탐동해변공연장을 중심으로 제주도 전역에서 열렸다. 중심 프로그램으로 기원대축제, 제주어축제, 전통문화축제, 무형문화재축제, 제주역사축제, 해녀축제, 예술축제 등으로 나뉘어 50여 개의 개별 행사가 열렸다. 한편 제주지방을 강타한 태풍 나리의 피해복구로 지친 도민들의 심신을 달래고 모두가 하나 되어 풍수해를 이겨내는 도민 대화합 축제로 치러졌으며 10월 9일과 10일 양일간에 당초 경연대회로 예정되어 있던 전통문화축제와 학생민속예술축제를 시연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다. 또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말하기대회·가요제·연극제·민요제 등으로 구성된 제주어축제와 역사축제 일환인 해녀축제가 신설되어 성황리에 열렸다.

제46회 탐라문화제는 10월 5일 개막식에 앞서 열린 제주의녀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는 만덕제가 유교식 제례로 봉행(사라봉 모충사), 삼성혈~남문로터리~중앙로~탐동 구간에서 전 출연팀이 참가하는 문화의 길축제에 이어 오후 7시 30분 탐동 해변공연장에서의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간 일정으로 시작하였으나 행사기간 비가 내려 전체 프로그램의 진행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의 관람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

이번 탐라문화제에선 축제장소가 또다시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2007년 한 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필자는 2006년에도 축제장소와 관련하여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주최측인 예

총 제주도연합회는 2007년 제46회 탐라문화제를 치르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사용하던 신산공원이 협소한데다 소음에 따른 민원 제기로 부득이하게 탐동 광장으로 옮겨 개최한 것이다. 하지만 소음 민원은 없었지만 모든 게 축제 장소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날씨 영향도 있었지만 탐라문화제의 가장 중심 프로그램의 하나인 민속예술축제를 마당판에서 연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또 무대공연은 해변공연장에서 열림으로써 상호간에 연계성이 부족하고 중심 프로그램의 집약화가 어려웠다. 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탐라문화제가 발굴하고 창작한 제주민속예술작품이 부지기수요, 이미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작품이 여럿으로 제주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남다른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설축제장소 하나 없이 열리고 있는 탐라문화제의 생명력 또한 길다고 여겨진다.

나. 산업 · 관광축제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하거나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열린 축제는 22개였다. 제14회 성산일출제, 제11회 새해해맞이일출제, 함덕 서우봉일출제, 추자 돈대산일출제, 하도리 해맞이행사, 월랑봉일출제, 제11회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제16회 제주왕벚꽃축제, 제25회 제주유채꽃잔치, 제13회 한라산고사리축제, 樂·올래·PLAY, 2007년 제주황금도새기축제, 제8회 보목수산물품자리돔큰잔치, 2007 이호테우축제, 제5회 효돈동환경사랑쇠소깍검은모래축제, 제6회 예래생태마을해변축제, 제7회 도두오래물·수산물대축제, 제12회 표선해변백사대축제, 제6회 삼양검은모래축제, 제14회 제주억새꽃축제, 제5회 제주마축제, 제7회 최남단모슬포방어축제 등이다.

□ 제14회 성산일출제

일출, 새해소망 기원과 관련된 축제 중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 일찍이 영주십경 중에서도 '성산출일'을 으뜸으로 칠 정도로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곳이다. 성산일출제는 서귀포시 주최, 성산일출제축제위원회 주관으로 2006년 12월 31일 오후 1시 성산읍 해안도로에서 진행된 새해 소망 마라톤대회(5km, 10km, 20km)를 시작으로 둘째 날인 새해 1월 1일 새벽 3시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일출제에 이어 금줄커팅, 해맞이, 치어방류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소망풍선 날리기, 사랑의 편지쓰기, 7080 전시회, 캐리커처, 포토존, 네일아트, 향토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그런데 일출을 보기 위해 어느

해보다 많은 3만 여명의 관람객이 찾았으나 흐린 날씨로 일출 광경을 볼 수는 없었다. 한편 행사장을 찾은 김형수 서귀포시장은 축제 기간을 1월 1일을 전후한 일주일 정도로 연장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성산일출제의 규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11회 정월대보름들불축제

북제주군의 대표적인 축제였으나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된 뒤 처음으로 제주시 주최로 3월 1일부터 3일까지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007년도 문화관광부 지정 유망축제인 들불축제는 예년에 비해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야외축제의 특성상 행사기간 날씨의 영향이 컸다. 한편 이 축제는 아시아경제문화리서치 주관의 제1회 대한민국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문화대상 축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번 문화대상 축제는 전국 7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독창성과 재미·즐거움을 3차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 대상 축제로는 보령 머드축제, 금산 인삼축제, 함평군 나비축제, 하동군 야생차문화축제, 안동시 국제탈춤페스티벌, 청양군 고추구기자축제, 고령군 대가야체험축제 등 8개 축제가 함께 뽑혔다. 그러나 들불축제는 매년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인 마지막 날 들불놓기 후 집중적으로 몰려나오는 차량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제주도내 축제 중 가장 많은 예산(10억 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들불축제만의 독자적인 캐릭터상품의 개발과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관람객의 대부분(약 90%)이 제주도민에 국한된 지역축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테마를 살리는 가장 중심프로그램인 오름불놓기는 한 번밖에 할 수가 없기에 3일이라는 축제기간을 벗어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새별오름 일대의 축제장은 여전히 들불축제 기간에만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또한 예산낭비라는 의견이 있으므로 상설운영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때이다.

몇 년 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북제주군의 용역으로 축제장 상설운영방안을 연구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필자는 새별오름의 지형적 특성(연중 거센 바람이 많고 평화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망권)을 고려하여 오색깃발 설치미술을 활용한 바람축제와 주변 유희공간을 이용한 환경테마관을 조성한다면 연중 활용방안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새별오름 정상에 대형 인공달집을 설치하여 밤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한다면 축제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상설화도 가능하다.

실제로 1998년 제주민속관광타운 주차장에 2m 정도의 달집 4개를 상설로 설치하여 공연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포토존으로 활용, 인기를 얻기도 했다. 2007년 5월에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국내 44개의 축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6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회」에 따르면 들불축제의 만족도(4.62)는 국내 전체 축제의 평균(4.69)보다 낮고 특히 축제의 방문객 구성이 외지인(10.1%)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대부분 방문객들이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축제장을 방문, 지극히 제한적인 소비지출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은 1만 원대로 전국 평균 4만 9천 원에 비해 현저히 낮고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축제를 집행하는 운영시스템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막는 한계를 갖고 있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개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16회 제주왕벚꽃축제

제주시 주최, 제주시관광축제위원회 주관으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제주시종합경기장과 시내 벚꽃길에서 열렸다. 당초에는 4월 8일부터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이상기온으로 개화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일정을 조정하였다. 2007년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된 왕벚꽃축제는 천연기념물 제159호인 왕벚나무자생지(제주시 봉개동)이면서 왕벚꽃의 아름다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1992년부터 제주시 전농로 일대에서 열리다가 1997년 현재의 장소인 종합경기장 일대의 벚나무 군락지로 옮겨 개최되고 있다.

현재의 장소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무대와 전시 공간, 부대시설 등 축제관련 시설과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왕벚꽃의 개화시기에 맞춰야 하고 3일간의 짧은 기간에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다 보니 먹을거리 축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실제로 풍물장터 일반 개인분야 운영자 모집에 있어 10개의 매장에 560여 명이 몰려 5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수요와 공급의 경제 원리에 따르면 관람객은 많고 음식점의 수는 적다보니 당연한 몰림 현상이지만 바가지 상흔과, 차별 없는 음식 메뉴 등은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할 과제임은 틀림이 없다. 왕벚나무는 세계적으로 제주가 유일한 자생지(전라남도 해남군 대둔산,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예리 등 전국에 3곳 지정)의 하나임이 틀림없지만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꽃(사쿠라가 일본 나라꽃(國花)으로 잘못 알려졌으나 일본은 나라꽃이 없음)이라는 불명예 때문에 배어지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제주가 왕벚나무의 자생지라는 학술적 가치는 이미 1910년대에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벚꽃축제를 16년 동안 치르면서도 국제학술대회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은 오히려 축제를 주최, 주관하는 제주시와 축제위원회가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할 때이다.

□ 樂·올래·PLAY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으로 서귀포시 주최, 서귀포시상가변영연합회 주관으로 매주 토요일 중정로 일대에서 4월 7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특설무대 공연과 체험프로그램, 아름다운 가게 등 다양한 공연장르에서부터 설치미술, 체험코너 등 실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진행되었다. 서귀포시가 야심찬 '문화예술도시 육성'의 일환으로 시도한 장기간의 거리공연축제로 기획되었는데 10월 27일까지 주 2회 총 52회 공연을 가진 뒤 12월에는 22일부터 24일까지 송년이벤트로 개최되었다. 7월 장마기간과 9월 태풍 나리, 10월 칠십리축제 기간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주 개최하여 왔는데 당초 개최목적인 지역상가 살리기뿐만 아니라 총 1백91단체의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출연시키면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기량을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포털 사이트 거리공연 검색순위 1위와 전 세계 1백88국에 전송되는 아리랑 뉴스에 방송되는 등 전국적으로 서귀포시를 알렸으며, 서귀포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발전의 가능성을 보이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을 받았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동안 '문화의 불모지', '문화의 소외지' 라고까지 불리기도 했던 서귀포지역에 일 년도 안 된 짧은 시간 내에 문화의 폭풍이 불 수 있었던 것은 서귀포시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지역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할 것이다. 비록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많지 않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언제나 성과 우선주의와 조급함이 앞서는 지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출발의 첫 해에 거둔 성과는 향후 '樂·올래·PLAY'의 지속 여부를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이미 프랑스 아비뇽축제나 영국 에든버러페스티벌 등 다른 외국의 성공적인 예술축제에서도 그랬듯이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보통 10여년의 세월이 필요했기에 '樂·올래·PLAY'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 제7회 최남단모슬포방어축제

11월 9일 해상위령제를 시작으로 11일까지 대정읍 모슬포항을 중심으로 최남단방어축제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축제의 테마인 방어는 난류성 어종으로 10~12월에 주로 잡히고 성장속도가 매우 빨라서 1년이면 25~30cm까지 자라며 큰 방어는 1m 이상 자라는데,

방어축제가 열리는 모슬포 해역은 마라도와 가파도의 영향으로 물살이 매우 거세 모슬포 방어는 다른 곳에 비해 육질과 맛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방어잡이 체험에 나섰던 선박 침몰사고로 우환을 겪기도 했지만 2007년 제7회 최남단모슬포방어축제는 어느 해보다 다양한 체험위주의 행사로 진행돼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의 호응을 얻는 데 충분했다. 특히 방어 손으로 잡기와 배에서 진행된 방어 어시장 경매는 참여자와 관람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방어 무료시식 코너는 30kg이 넘는 대방어의 회를 맛보기 위해 1백m가 넘게 사람들이 줄을 서기도 했다.

방어축제위원회가 직접 운영한 방어음식점은 방어회를 비롯하여 방어를 재료로 한 다양한 요리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었으며, 행사장 주변에서는 가두리 대방어 낚시대회와 체험선상방어낚시, 전국바다낚시, 최남단 가요제, 방어축제 표지모델 선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발생한 해영호 참사를 거울삼아 안전축제를 위해 축제기간에 해상에 경비선, 육상에 구조대를 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한류스타 배용준 씨의 팬으로 후쿠오카 현에 거주하는 일본인 마츠오 미치코 씨는 2006년 12월에 태왕사신기 촬영장 관광 차 방문했다가 방어축제 참사 소식을 듣고 사고 유가족에게 50만 엔을, 2007년 3월에는 사고선박인 해영호 선장의 자녀가 학비가 없어 대학을 휴학했다는 사실을 알고 졸업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후원해줄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2007년 10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하여 불우이웃 성금으로 5백만 원을 기탁함으로써 남다른 제주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마츠오 씨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끌려온 강제노역자들이 참담한 생활을 안타깝게 여겨왔고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노역자들이 밤중에 자신에게 식품을 가져다주는 등의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평소 한국인에게 애정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 레저·스포츠축제

레저·스포츠·생활체육과 관련된 축제로는 제8회 겨울바다펭귄수영대회, 제8회 서귀포유채꽃국제걷기대회, 제주국제레저스포츠대축제, 제12회 제주국제마라톤축제 등 4개의 축제가 열렸다.

제8회 겨울바다펭귄수영대회

한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듯 정해년의 새해에도 새로운 다짐 속에 힘차게 출발

하자는 의미로 서귀포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7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참가자와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2000년부터 매년 첫 번째 일요일에 열리고 있는 펭귄수영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이 늘고 있어 겨울철 이색적인 체험관광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축제장에서는 수영대회 외에도 모래 조각 전시, 타악공연, 밸리댄스, 감귤액 마사지 체험, 펭귄에어로빅 등 풍성한 이벤트가 진행돼 색다른 추억거리를 제공했다.

□ 제9회 서귀포유채꽃국제걷기대회

3월 24일과 25일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을 중심으로 서귀포시 일원에서 한국·일본·중국 등 국내외 관광객 및 도민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는데, 오전 10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회식에 이어 경기장을 출발, 용흥 삼거리·영도폭포 산책로·지삿개 산책로 등을 거쳐 다시 월드컵경기장으로 돌아오는 5km·10km·20km구간 경기가 진행되었다. 이밖에도 저녁에는 서귀포칼호텔 야외무대에서 국내외 대회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국제친선의 밤 행사가 부대행사로 열렸다. 대회 이틀째인 25일에는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출발해 돛배낭골 입구·외돌개 산책로·걸매생태공원·정방폭포 등을 거쳐 다시 월드컵경기장으로 돌아오는 5km·10km·20km·30km구간에서 대회가 치러졌으며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서귀포시청과 아케이드상가, 이중섭거리주차장 등의 코스를 따라 해군군악대와 대회 참가자들이 참가하는 시가퍼레이드가 열리기도 했다.

□ 제주국제레저스포츠대축제

제주시, 제주레저스포츠축제조직위원회 주최, 각급 단체별 주관으로 6개의 단위별 행사가 6월부터 9월까지 열렸다. 제6회 제주오픈 전국윈드서핑대회(6. 15.~17./ 한림읍 금능해수욕장 / 제주특별자치도윈드서핑연합회)를 비롯하여 2007 돌하르방배마스터즈수영대회(6. 30.~7. 1./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 제주특별자치도수영연맹), 자전거페스티벌(7. 17./ 사대부중~이호동 방파제 / (사)자전거21제주지부), 제8회 제주시장배 철인3종경기, 2007 삼양해변노래자랑(8. 4./ 삼양해수욕장 / KCTV제주방송), 제10회 전국바다낚시대회(8. 26./ 서부두 방파제 / (사)제주도해양스포츠낚시연합회), 제3회 제주시장배 전국인라인스케이팅대회(9. 1.~2/ 탑동광장 / 국민생활체육제주시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등이 열렸다.

□ 제12회 제주국제마라톤축제

제주특별자치도 주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관으로 6월 3일 제주시 구좌읍 해안도로 일대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일본인 2백50명, 대만 25명 등 외국인 3백27명과 육지부에서 참가한 마라토너 9백여 명을 비롯해 모두 4천2백여 명이 참가해 제주의 초여름 날씨를 만끽하면서 레이스를 펼쳤다. 경사가 완만하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펼쳐지는 레이스 구간은 다른 대회의 레이스 구간보다도 아름답다는 감탄을 자아낼 만큼 인기가 높았다.

라. 기타 축제

기타축제는 문화축제, 산업·관광축제, 레저·스포츠축제 외의 축제로 분류하였으며, 2007지구환경축제, 제41회 한라산철쭉제, 2007 주민자치박람회 및 평생학습축제, 2007제주·사랑·평화의빛축제, 김만덕의나눔쌀천섬쌓기, 2007 건강 및 음식축제, 제1회 제주책축제, 2007 제주과학축전 등 8개의 축제가 열렸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내놓아 섬 백성을 구했던 조선조의 제주여인 김만덕(1739~1822)의 구휼정신을 기리기 위한 김만덕의 나눔 쌀 천섬쌓기가 6월과 7월에 걸친 약 한 달간 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렸다. 6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각 급 학교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김만덕 알기 계기교육을 시작으로 펼쳐진 이번 행사는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급 기관별로 사람 나눔의 쌀 모으기를 시행하였으며 7월 28일에는 제주시 관덕정에서 김만덕의 나눔 쌀 천섬쌓기 운동으로 이어졌다. ‘김만덕의 나눔’ 재현운동은 마치 제주도 전역에 불이 붙듯 번져나가 기념사업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가 놀랄 만큼 대성황을 이루었다. 김만덕은 정조 16년(1795) 이래 제주 섬에 큰 기근이 들어 굶어죽는 도민들이 속출하자 자신의 재산을 털어 육지부에서 쌀을 구해다 구휼했다. 만덕기념사업회가 관덕정 앞 광장에서 쌀 천섬쌓기 행사를 벌이는 것도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대동적 참여축제로 재현하려는 참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김만덕 객주터 제례, 시가행진, 천섬쌓기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 10만 명의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제주도내의 기업과 공공기관·단체가 천 섬이 넘는 쌀을 모았다는 성과보다 어린 학생으로부터 각계각층까지 모두가 동참했다는 참여축제였기에 더욱 값진 축제였다. 하지만 본 행사는 축제라기보다 일회성 이벤트의 성격이 강하기에 향후 탐라문화제 기간에 열리는 만덕제와 연계하거나 통합하

여 제례봉행과 만덕상 시상, 천섬쌓기와 나눔쌀 전달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새롭게 개발한다면 문화축제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3. 나오며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는 2006년 9월부터 바쁘게 움직여 제주도내 축제의 구조 조정화에 박차를 가하였는데 2007년 2월에 들어서면서 총 29건의 축제 중에서 4개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외하는 등 2007년도 지역축제 종합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위미조배머들축제, 서귀포봄소식축제, 성산조개바다축제, 강정올림은어축제 등 4개 축제가 예산제외의 평가를 받았다. 또 최남단모슬포방어축제와 제주차문화축제, 성산일출제, 법환좁녀축제, 2007 황금도새기축제는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다. 효돈동환경사랑쇠소깍검은모래축제를 비롯한 국제차문화축제, 성산일출제, 표선해변백사대축제, 한라산고사리축제, 삼양검은모래축제, 법환수산물품한치축제, 2007 황금도새기축제 등은 프로그램 보완을 요구받았다. 이와 함께 축제기획자의 설명과 직접보고를 통해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지을 축제로 최남단 방어축제를 비롯한 성산일출제, 제주마축제, 제주감귤축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제주억새꽃축제, 제주유채꽃축제, 제주왕벚꽃축제 등이 선정되었다. 서귀포칠십리와 칠선녀 축제는 통합할 때만 예산 지원을, 이호테우축제와 도두 오래물·수산물축제는 축제통합 권고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서귀포뚜벅이축제는 조건부 지원대상축제로, 설문대할망 축제, 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 춤광어축제는 지역축제 분류 제외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축제의 예산지원이 제외되거나 통폐합 조정을 받은 축제 관계자들의 반발도 있었다. 특히 제주도의회는 이미 전년도에 예산심의를 확정된 축제까지 삭감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심사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지역축제 사전 심의를 통해 당초 29건에 25억 2,000만 원의 예산 편성에서 유사축제 통합 및 지역축제 분류 제외 등을 통해 5개의 축제를 폐지토록 함으로써 3억 원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2007년에 위미조배머들축제를 비롯한 예산지원 제외 축제와 서귀포뚜벅이축제가 개최되지 못했다.

한편 축제육성위원회는 10월 8일 2007 상반기 개최 축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 3월부터 9월까지 개최된 17개 축제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했다. 중간평가는 2007년 자체 계획에 따라 개최된 34개 축제에 대

해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으며 예산증액 6개, 현행수준 유지 6개, 예산 일부삭감 2개, 예산 대폭 삭감 1개 축제로 발표했다.

또 축제육성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와 8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축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64건(기존축제부문 18편·신규축제 부문 46편)이 접수되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신규부문 우수상에 제주설문대할망축제를, 장려상에 산지천 야간축제 등 4건을 뽑았다. 또 기존 축제 부문에서 제주도채비불무축제와 제주녹차축제를 우수상에,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등 2개 아이디어에 장려상으로 결정했다.

지역축제에 대한 컨설팅이 12월에 이루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육성위원회는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사)다음문화예술기획연구회와 공동으로 남원의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모슬포의 최남단 방어 축제, 삼양의 검은 모래 축제, 도두의 오래물·수산물 축제 등에 대해 축제추진조직과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각 축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육성위원회는 앞으로도 각 지역축제의 올바른 방향과 테마에 맞는 축제로서 정체성 확보, 관광자원화의 방향 및 브랜드화를 위한 컨설팅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글 / 김 석 범(제주문화예술재단 문예진흥부장)